

어머니와 딸에게 남편을 뺏긴 여인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38)

연화색의 애육 업장 소멸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계시 때다. 우선나움에 어느 젊은 거사 한 사람이 연화색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게 되었다. 연화색은 마음과 용모가 곱고 아름다웠다. 얼마 후 부인에게 태기가 있어 친정모로 거처를 옮겨 딸아이를 낳았다. 남편은 아내가 해산을 했으므로 한 동안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남편은 그녀의 어머니와 정을 통하고 말았다. 부인 연화색이 그 사실을 알고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려 했다. 그러나 부부의 인연을 끊으면 부모에게 누가 될까 두려웠고, 또 젖먹이 아이가 가워져서 부끄러움을 꼭 참고 남편의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딸을 여덟 살까지 기르곤 다음에 집을 떠나 바라내에 이르렀다. 부인은 오래 굶주리고 몹시 지쳤던 터라 물가에 앉아 쉬고 있었다. 이때 한 장자가 그녀를 보고는 한 눈에 들어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어디 사는 누구인데, 혼자 이라고 있는 겁니까?”
 “저는 아무개의 딸인데, 지금은 혼자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없으시다면 저의 정실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는 연화색을 부인으로 삼았다. 연화색은 그 집안을 두루 돌보며 모두가 화합하게 하였고, 서로 중히 여기면서 사이좋게 여덟 해를 살았다. 어느 날 장자는 그의 부인에게 말했다.
 “나에게 우선나움에서 받은 돈이 있는데, 거두어들이지 않은 지가 벌써 8년이 되었소. 따져서 계산해 보면 엄청나게 큰돈이 될 것이요, 한 동안 집을 비우고 다녀와야 할 것조.”
 “그 마을의 여인들이 방탕하다고 들었습니다. 여인들의 유혹이 많을 것입니다. 당신을 그런 곳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못나고 어려서지만 그 정도로 막나가는 사람은 아니요.”
 “그렇다면 가서도 좋습니다만, 맹세 한 마디는 듣고 싶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나는 절대로 부정한 마음을 일으키지도, 행하지도 않을 것이요.”

아오곤 했다. 이상하게 여긴 연화색이 은밀하게 그의 몸종에게 남편의 행동에 대해 물어보자 몸종이 말했다.
 “주인께서는 새로 작은 부인을 얻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남편이 돌아오자 연화색이 물었다.
 “당신께서는 새로 작은 부인을 보았단데 무엇 때문에 숨기는 것입니까?”
 “당신이 알게 되면 나를 원망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밖에 따로 살게 한 것이요.”
 “제가 싫어하거나 시새움이 없을 것을 맹세하오니 작은 부인을 집으로 들여 당신 돌보는 일을 돕게 하십시오.”
 그러자 장자는 바로 작은 부인을 집으로 들였다. 그러던 어느 날, 첫째 부인은 머리를 감고 있는 작

리고 이해가 되면서 배고픔과 목마름이 싹 가셨다. 이때 세존께서는 대중 속에 있는 연화색을 알아보고, 사상제를 설하니, 연화색은 그 자리에서 티끌을 떨리하고 때를 여의면서 법논의 깨끗함을 얻었다. 연화색이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 법 가운데서 출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바로 제자로 받아주시며 대에도에게 말씀하셨다.
 “이 여인을 제도하여 주십시오.”
 대에도 비구니가 이내 연화색을 출가시켜 구족계를 받게 하니 연화색은 부지런히 공부하여 아라한이 되었다. 8해탈을 갖추게 되자 얼굴 모습에 빛



삽화 · 강병호

은 부인의 모습을 보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작은 부인은 연화색이 고향에 두고 온 딸이었던 것이다. 며칠 동안 작은 부인의 모습을 살펴본 연화색은 결국 작은 부인이 자신의 딸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옛날에는 어머니와 함께 남편을 나누었고, 지금은 딸과 남편을 같이하게 되었구나. 나고 죽고 혼미한 어지러움이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애육을 끊고 출가하여 도를 닦지 않으면, 이러한 뒤바뀜을 무엇으로 그치게 할 수 있을까.”
 연화색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 기원의 문에 이르렀다. 그때 세존께서는 마침 대중에게 예위싸여 설법을 하고 계셨다. 연화색은 사람들 많은 것을 보고 음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정사에 들어갔다. 세존의 법을 들은 연화색은 저절로 마음이 열

이 나서 옛날보다 훨씬 아름다워졌다.
 그 후 연화색이 마을에 들어가 결식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바라문 하나가 그를 보고 음식을 품게 되었다. 연화색이 뒤에 다시 결식을 나갔는데, 그 바라문이 몰래 뒤따라 들어가 그의 침대 밑에 숨어 있었다. 마침 철야정진을 마친 연화색은 방으로 들어가 깊은 잠에 빠졌다. 이때 숨어 있던 바라문이 연화색비구니에게 부정한 짓을 하려 했다. 그러자 비구니의 몸은 이내 허공으로 솟아올랐고, 그 바라문은 평상 위에서 산 채로 곧바로 지옥에 떨어졌다. (미사색부화해오분을) 제5권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행 재구성
구성=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㉞



역지사지 · 이심전심

아기의 울음소리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그치지 않았다. 계속되는 아기의 울음소리는 나를 포함한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기 시작했다. 부산까지 걸어야 한 시간이지만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으려니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다. 승객들이 불편할 것을 모를 리 없는 아기의 엄마도 당황스럽고 미안해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불편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다.

나도 젊은 시절에 아이 넷을 데리고 다녔고, 버스나 기차에서 같은 경험을 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문득 지난 13년 전 짐의 일이 생각났다. 미국 뉴욕으로 갈 일이 있었다. 나와 남편은 미국 뉴욕으로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탔다. 밤이 되었는데 맨 앞좌석에 젊은 여인 두 사람이 똑 같은 어린 아기를 안고 우유를 먹고 있었다. 그런데 조금 후 두 아기가 동시에 자지러지듯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기는 계속 울어댔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오래도록 계속됐다. 처음엔 걱정도 되고 했지만 아기의 울음소리가 계속 되자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옆자리에 앉은 부인을 보니 나보다도 더 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자식 키워본 엄마가 '엄마' 마음 알아

나도 언젠가 '조상' 된다... 잘 살아야

었다.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보니 일어난 짜증을 조금은 참을 수 있었다. 더 놀랐던 것은 옆자리에 앉은 그 부인이 아기를 받아 업고 통로를 돌아 갔다 하면서 아기를 달래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고, 짜증을 뱉던 내 마음이 부끄러웠다. 그래서 말로라도 한 수 거두고 싶어서 부인에게 물었다.

“아이가 어디 아픈가요?” 했더니 아이를 업은 그 부인이 “이 아이들이 외국에 입양을 가는 길입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아려왔다. 남편도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면서 같은 마음이 들었다. 나와 남편은 잠을 잘 이루질 못했다. 꽤 긴 시간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했고, 아기들의 기구한 사연에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와 남편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뉴욕에 도착했다.

그 두 여인은 아기를 입양자에게 인도하는 도우미였는데, 비행기를 한 번 더 갈아타야 한다고 했다. 나와 남편은 그들의 짐을 찾아주었고 인사를 나누었다. 그 아기는 지금쯤 열 세 살쯤 되었을 것이다. 어떻게 자랐을까? 문득 그 때 일이 생각났다. 지금도 그때 생각난 하면 가슴이 찢어진다. 태어난 땅에서, 나이준 부모 밑에서 살지 못하고 겨우 2달 만에 다른 나라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떠나야 했

던 그 아이들이 궁급해졌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의 설움을 보면서 그 때 그 아이들이 훗시 어려움에 격치는 않았는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급했다. 부디 잘 커서 다시 고향을 볼 수 있기를 축원했다. 그날, 그 아기의 울음에 그때 그 아기의 모습이 떠올라 비행기에서 내려 숙소로 가는 내내 '인연'에 대해 세삼 생각하게 됐다. 세상엔 남의 일 같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다. 것을 세삼 느꼈다. 특히 부모의 심정은 누구나 비슷한 것이라. 그 옛날 먼 곳으로 입양되는 아이들의 기억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아있으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자식을 키워본 '엄마'의 마음일 것이다. 누구나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 이해하고 마음을 내는 일이야말로 '이타(利他)'의 시작이 아닐까.

조상과 후손

4월 보름이면 하얀거결제에 들어가고 기도 도량에서는 백중까지 조상님을 위한 기도를 시작한다. 영단에 조상 위패를 모시고 왕생극락을 발원한다. 그 옛날 우리들의 조상님의 모습을 뵈 일은 없지만 그 어른들이 계셨기에 오늘날의 내가 있음이니 당연히 모실 일이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한다. 지금 그 어른들의 영혼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모두 겁 다생으로 맺어진 인연들일 텐데.

모서진 위패를 보면서 나와 인연 있었던 영가들의 모습을 기억하니 여찌 인연이 눈앞에 있는 인연만 인연일까 생각했다. 기억하지 못하는 아득한 시절로부터 시작된 인연의 인연이 있음을 생각하니 지금 눈앞에 서있는 인연의 모습들이 가벼이 보이지 않음이다.

나의 이 작은 기도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정성으로 그들 영가들을 향해 합장하고 발원한다. 이미 좋은 몸 받아 좋은 세상에 태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영가를 위해 더 나은 부처님 세상에서 아름다운 인연 만나기를 축원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우선 내가 행복하다.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마치 숙제를 마친 느낌이라고 할까.

나 역시 언젠가는 후손들의 조상의 될 것이다. 이제 후손들에게 기억될 나의 모습에 마음이 쓰인다. 좋은 모습으로 살다 좋은 모습을 기억되기를 바랄 뿐이다. 2년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참부다라니경 기도문)을 사경하시던 모습이. 그래서 지금도 그때 그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그 공덕으로 극락에 계실거란 믿는다. 기억에 남을 좋은 일 꼭 하나만이라도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이 70이 되니 주변에 경사보다는 조사가 더 많다. 가까운 인연들이 가을 낙엽처럼 한 잎 두 잎 떨어져 가고 있다. 나도 언젠가는 육신의 벗어날 것이다. 누군가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라도 좋은 모습으로 살다 갈 일이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기공작법, 작계, 작지법으로 살활)

지리산 토암사 기도도량



- 빙의(귀신병)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뜻과 같이 마음대로 안되는 분
- 기타 등등 전화상담만으로도 된다 안된다 속 시원히 알 수 있습니다.

※ 오랜 수행 기도와 더불어서 성직자의 양심으로 발보리심 하여지이다.

인터넷 검색창 : 검색



주소: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643번지 전화: 055)974-0033, 055)973-4006
상담 및 예약: 011-843-9295, 010-2634-2728

지리산 토암사 주지 혜산 합장

생명 에너지를
균건히 지키면
악이 입에 이르기 전에
빙이 낫는다
원인종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종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함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원 구분
가 루 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죽염 230g 78,500원
핵심 알갱이 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원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김홍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빙의 퇴마 사례 생생하게 전하고 그 해결방법 밝혀 !!!

빙의에 걸리면 정신질환인 우울, 불안, 공포증, 또는 조울증, 정신분열 등 심인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한다. 심지어 요즘엔 자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희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제행 지음 / 신국판 / 319페이지 / 13,000원

이 책은 심인성질환의 치료와 퇴마의 권위자인 제행스님이 고간 치유했던 사례들을 담은 책이다. ※ 입금계좌: 농협 552-01-047918 대한불교비룡정사

빙의 퇴마 전문가 과정

1. 개강 : 2013년 10월 4일(금) 오후 1시 ~ 2013년 10월 5일(토) 오후 1시
2. 4회 과정 선착순 각 5명 (수강료 120만원)
3. 누구나 쉽게 배우고 퇴마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개인지도

1. 기본단계, 설명학, 빙의퇴마와 최면요법
2. 2명 이상 지방출장지도 가능

예약상담 사주, 작명, 빙의퇴마, 심리상담
빙의(신병) 출장 퇴마합니다.

전화 011-772-4606

서울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